

## 제12장 : 사주명리학을 통한 성격(十天干의 성질 및 喜忌)

### 1. 사주학의 새로운 발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출생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태어나는 것을 선천적인 명국(命局)이라고 한다면 출생 후의 과정은 후천적인 운(運)이라고 할 수 있다.

명국 즉 사주 중의 오행의 배합을 보고 선천적인 시간과 공간의 현상을 인식할 수 있다. 운(대운, 유년, 유월, 유일, 유시)에 나타나는 오행을 보고 후천적인 시공의 현상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은 사주와 운의 복잡한 배합을 통해 제한되어 있으며 그 한계 속에서 생존, 발전, 쇠퇴, 사멸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미묘한 관계이기도 하다.

현대의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 사주학처럼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과학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할 뿐이지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하고 어디로 진행하는지 알지 못한다. 더욱이 인간의 심리 작용의 원동력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라고 해도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역사상 유명했던 사주학의 대가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하였다. 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과학자보다 월등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신선은 아니었다. 다만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인간을 자연의 법칙, 오행의 법칙을 가지고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자연 속에서 발견해 낸 것은 논리학의 인과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은 신이 들렸다거나 영감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주학의 대가들은 그저 자연의 원리인 오행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그것으로 인간의 운명을 판단했을 뿐이다.

우리는 선현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이론을 성립시켜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은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 10천간의 성질 및 희기(喜忌)를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십 개의 천간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며 일간의 성질 및 희기를 설명한 것이니 착오 없기 바란다. 용신에 대입하여 응용할 수도 있다.

## 2. 甲乙木의 성질 및 그 희기

### 1) 甲木의 성질 및 그 희기 -

甲木은 陽에 속하며 대들보를 만드는 거목을 의미한다.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면 좋고 申월과 子월이 가장 길하다.  
사주에 庚辛이 있으면 도끼와 끝의 역할을 하나니 주로 명예에 이롭다.

운이 申酉 辰戌丑未로 향하면 크게 발달한다.

특히 辛의 정관이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런데 寅午戌 火局과 丁火 상관이 천간에 튀어나오면 애쓰고 노고가 많아도 되는 일이 없다. 운 역시 그러하다.

만약 지지가 火局을 이루고 丁火가 투출했을지라도  
사주에 辰, 戌, 丑, 未가 있거나 천간에 戊, 己가 노출되어 있다면 운이 재운인 土로 향할 때 상관생재(傷官生財)하므로 크게 발복한다.

甲木은 천간의 처음이며 뿌리도 잎도 없는 死木이다.

천년 동안 장구하게 자라는 속성이 있고 辰의 土가 있으면 뿌리를 밖아 견고하고 金을 얻으면 동량지재가 되고 火가 성하면 불에 타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봄, 가을에는 스스로 왕성하다.

위의 문장은 甲木이 건축을 할 때의 기둥과 대들보로 쓰는 재목이 된다는 뜻이다.

겨울의 물(水)을 만나면 子는 지하수이므로 뿌리가 지하수를 흡수하는 듯이 오래도록 성장한다는 뜻이다. 甲이 가장 꺼리는 것은 火가 치열하여 불에 타는 것이다.

만약 사주에서 甲日干인데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고 천간에 丙丁이 투출하고 지지가 火局을 이루었다면 火의 기세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 土로써 火勢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상관생재라고 한다.

이것은 새옹지마와 같아 火가 변해 吉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甲日干이 지지에 寅午戌 三合 火局을 이루고 천간에 丁火가 투출했다고 해도 사주에 辰, 戌, 丑, 未, 戌, 己같은 土가 있거나 운에서 土의 財運이 오면 발복하게 된다.

甲木은 공중에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른다. 싹이 트려면 火가 필요하고 봄에는 金을 싫어하고 가을에는 土를 싫어한다. 火가 세력이 강성할 때는 용(辰)을 만나야 하고 水가 범람하면 범(寅)을 타야 한다. 지지가 윤택하고 천간이 中和하면 오래도록 뿌리를 박고 장생하게 된다.

甲木은 순양(純陽)의 木으로 體가 견고하며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그리고 극히 웅장하다. 初春(寅月)에 生하면 나무는 어리고 연약한데 기온은 차가우므로 싹이 트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때는 따듯한 火가 있어야 비로소 발달할 수 있다.

中春(卯月)에 生하면 극히 왕성해지므로 火가 있어 그 기세를 배설해야 한다. 이때 金이 있으면 金은 봄에 囚하므로 쇠약한 金으로 왕성한 木을 극해봤자 金만 일그러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봄에는 金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甲木이 가을에 生하면 失時하여 쇠약해져 잎이 지고 생기가 뿌리로 내려간다. 土는 木의 극을 받는데다가 金月에 土生金하느라고 극도로 허약하여 푸석푸석한 상태이므로 木의 극을 받기만 할 뿐 나무의 뿌리를 배양할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나무는 허약한 土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쓰러지므로 가을의 甲木에게 土는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가을의 土는 木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土生金하여 金의 힘을 강화시켜 木을 극하는 것을 도와주니 財生殺이다. 그러므로 가을의 甲木은 土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甲日干인데 지지에 寅午戌이 있고 천간에 丙丁이 있으면 木生火로 甲의 기운이 빠질 뿐만 아니라 甲이 불에 타버리고 만다. 이럴 때 辰이 일지든지 아니면 다른 지지에 있는 辰은 水의 창고로써 습기가 있으니 습토는 木을 생하고 火의 기운을 흡수하므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지지가 申子辰의 水局을 이루고 천간에 壬癸가 있으면 물이 범람하여 나무가 뜨는 까닭에 水汎木浮의 형상이다. 이때 寅이 지지에 있으면 寅은 火土의 장생지(丙戌의 장생지)이고 寅은 甲의 건록, 임관의 지지이며 水를 빨아들이고 甲을 보좌하는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甲은 물에 떠내려갈 염려가 없다. 金이 예리하지 않고 土가 메마르지 않고 火가 치열하지 않고 水가 범람하지 않으면 甲木은 오래도록 장성할 수 있다.

## 2) 乙木의 성질 및 그 희기 -

乙木은 陰에 속하고 生氣가 있는 생나무다. 봄이면 꽃과 잎이 무성하고 10월에 태어나면 특히 좋다. 지지가 亥卯未의 木局이 되거나 申子辰 水局이면 運이 亥子丑 北方으로 향하거나 丙, 丁, 庚, 辛이 와도 무방하다. 그러나 寅午戌 火局이 되거나 巳酉丑 金局이 되면 나쁘고 게다가 운이 남방(巳午未)으로 가면 요절할 위험이 있다.

乙木은 뿌리가 있다. 양지가 좋고 음지를 싫어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물이 범람해 뜨는 것이며 金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남방의 火세가 웅장하면 재앙이 가볍지 않을 것이고 서방의 金이 있고 다시 土까지 있으면 재앙이 중첩될 것이다. 동량의 재목이 못 되며 뿌리가 달린 木이니 심사숙고하여 용신을 정해야 할 것이다.

위의 문장을 설명하자면 乙木은 화초와 같아 잎사귀와 잔가지와 뿌리가 있어서 뿌리와 잔가지 잎사귀가 없는 상태의 甲木과 다르다는 것이다. 乙木은 특히 陽和한 햇살을 좋아하고(春의 乙木은 丙癸가 있으면 좋은데 이유는 丙의 태양이 햇빛을 비추고 癸의 우로가 운택하게 하여 中和를 이루기 때문이다) 응달과 축축한 흙(예컨대 겨울생 乙木에 壬癸가 사주에 있음)을 싫어한다. 물이 많아 방탕할 때 甲이 없으면 물결에 휩쓸려 자취를 감추고 만다. 火의 세력이 지나치게 치열하면 필히 재앙이 생기고 土金의 세력이 왕하면 乙木의 뿌리를 해치므로 필히 요절한다는 것이다.

乙木은 비록 연약한 나무지만 未土를 찌르고 丑土를 흠어버리며 丁과 丙이 사주에 있으면 酉와 申月일지라도 무방하다. 亥子月이나 지지에 水가 많은 경우에는 午가 있어도 한기를 제거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힘들다. 水, 土, 金이 왕성할 때는 甲木이 있으면 등나무덩쿨이 고목을 의지하고 뻗어 나가듯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乙木은 甲木의 質이며 甲木의 生氣를 이어 받은 것이다. 봄에는 꽃나무인 복숭아나무, 배나무 같아서 金이 와서 극하면 나쁘고 여름에는 모내기를 끝낸 벼와 같아서 물이 있어야 하고, 가을에는 오동나무나 계수나무 같으니 金이 왕하면 火로 억제하고, 겨울에는 꽃봉오리 같으니 火가 따듯하게 하고 土로 배양하면 좋다. 봄에 火가 필요한 것은 반영하기 위함이고, 여름에는 건조하니 水가 있어 땅을 적셔주면 좋고, 가을에는 金이 왕하니 火가 있어 金을 극제하면 좋고, 겨울에는 해동하기 위해 火가 필요하다. 丑未月 또는 乙未, 乙丑日에 생하면 未는 木의 창고로써 뿌리가 뻗어 내리고 丑은 습토이니 수분의 배양을 받으니 좋은 것이다.

申酉月 또는 乙酉日에 생하였어도 丙丁이 천간에 투출하면 강한 金을 극제하므로 무방하다. 亥子月 또는 乙亥日에 생하였는데 천간에 丙丁이 없고 지지에 戊未가 없으면 午火가 있어도 힘이 약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천간에 甲木이 투출하거나 지지에 寅木이 있으면 봄에는 겹재의 도움을 얻고, 가을, 겨울에도 도움을 받아 金을 겁내지 않고 물에 뜨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총괄해서 말하면 乙木은 연약한 꽃나무와 같아서 뿌리와 잎이 있는데 지나치게 음습하면 성장하기 힘들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떠내려 갈 우려가 있고  
火가 과도하면 타버리며,  
金이 과도하면 꺾이고,  
土가 과다하면 土生金하니 좋지 않다.

그러므로 乙木은 봄에는 火가 있어야 좋고 여름에는 水가 필요하고 가을에는 火가 있어서 金을 제압해야 하고 겨울에는 해동하기 위해 火가 필요한 것이다.

乙木이 신약할 경우에는 甲木의 투출이나 寅木의 도움이 필요하니 사계절이 마찬가지다.

乙은 겹재 甲을 좋아한다.

### 3. 丙丁火의 성질 및 희기

#### 1) 丙火의 성질 및 희기 -

丙火는 陽에 속하며 太陽의 正氣로써 만물을 생육한다. 봄, 여름에 태어난 丙火는 좋고 자연히 성공하며 정신력이 강하다. 거기에 천월이 덕이 있고 운이 동방으로 행하면 매우 묘하다. 비록 壬癸의 水가 있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戊己가 천간에 있으면 그 복을 감소하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를 범하면 관부의 형욕을 받고 파재하고 상복을 입는다. 가을과 겨울의 丙火가 특히 申時에서 丑時까지의 金水의 時에 태어나거나 지지가 水局을 이루면 노비가 아니면 수종이 되어 일생 동안 이별과 고독과 가난과 잔질에 시달리며 심하면 요절한다.(이것은 재관이 왕하고 일주가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극설이 태과한 경우)]

丙火는 밝기가 태양과 같고 원래 정대한 기상이 있으며 빛은 천리를 비추고 뜨거움은 우주에 두루 미친다. 水가 있어도 木이 있으면 무방한데 다만 습토를 만나면 나쁘다. 壬水의 江湖가 어찌 태양을 꺼뜨릴 수 있으랴? 오직 뻥뻥한 숲을 두려워한다.] 위의문장을 풀이하면 丙火는 태양과 같아서 광휘를 발하고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봄, 여름에는 木火가 서로 상응하여 빛을 발하므로 자연히 정신력이 뛰어나다. 水木火가 연결돼 있으면 관은 인을 생하고 인은 나를 생하니 살인상생(殺印相生)의 형세가 되어 좋고 戊己의 土가 없어 관살을 제압함이 없다면 발달한다. 습토(辰, 丑)는 빛을 흡수하여 광명을 흐리게 하므로 나쁘다. 가을과 겨울에는 일간이 약하고 金水가 왕하니 극을 심히 받는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존하기 급급하여 발전은 더욱 생각지도 못한다. 만약 亥卯未 木局 또는 寅卯辰 木方이 되고 숲을 이루면 그들이 쳐서 丙火가 위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천간에 壬水가 있으면 왕성한 木을 더욱 강하게 하며 丙火를 극하니 七殺이 되어 불길하다.

「적천수」에 이르되, [丙火는 맹렬하여 서리와 눈을 업신여기고 庚金을 녹이며 辛金을 만나면 오히려 겁을 내고 土를 만나면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水가 창궐해도 정절을 지킨다. 寅午戌 火局에 甲木이 천간에 투출하면 스스로 타 버리고 말 것이다.]

임철초는 이르되, [火는 陽의 精이고 丙火는 작렬함이 극에 이른 양이다. 그러므로 무섭게 뜨거운 것이다. 가을에 서리를 능멸하고 겨울에 눈을 업신

여기며 庚金이 비록 완강해도 힘으로써 녹여버리며 辛金은 본래 연약하지만 합하여 丙火가 약해진다. 土는 火의 자식인 그러므로 戊己가 많으면 자애로운 덕을 드러내고 水는 火의 君이니 壬癸가 비록 왕해도 충절을 잃지 않는다.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으니 寅午戌 이 모두 있고 甲이 노출되면 메말라 타서 없어지고 만다.]

임철초가 이르되, [丙火는 순양의 火로 기세가 맹렬하여 서리와 눈을 업신여기고 추위를 물리치는 공이 있다. 庚金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강포한 것을 쳐부수는 속성 때문이고 辛金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하면 유순하여 화평하기 때문이다. 土가 많으면 자비로움을 이루는 것은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때문이고, 水가 창궐해도 충절을 나타내는 것은윗사람에게 구원을 바라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지지에 寅午戌이 있으면 불길의 지나치게 왕성한데 甲木까지 있으면 오히려 타서 소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맹렬한 火勢를 배설해야 할 때는 반드시 己土(傷官)을 쓰고 너무 건조하면 壬水(七殺)을 쓸 것이며 그 세력에 순응해야 할 때는 오히려 辛金(正財)을 써야 할 것이다. 己土는 습기 있는 아래쪽의 흙으로써 능히 원양의 기를 흡수하고 戊土는 높은 곳에 위치한 메마른 흙이므로 丙火를 만나면 오히려 부서져버린다.

壬水는 강명한 중에 덕이 있어 능히 뜨거운 불길을 제어할 수 있고 癸水는 음유하니 丙火를 만나면 증발해버리는 안개구름과 같다. 辛金은 유연한 물체로서 丙辛합하여 서로 친하게 되고 水로 化하여 서로를 구제한다. 庚金은 강건하여 丙火와 경쟁하려 하므로 세불양립이라 녹아 버리고야 만다. 이것은 비록 五行을 논한 것이지만 세상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丙火는 태양과 같아서 대지를 두루 비추며 기세가 강하고 맹렬하여 눈과 얼음을 녹이고 庚金을 녹여버린다. 그러나 구름이 햇빛을 가리듯 癸水가 丙火를 가리면 그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며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모름지기 일간의 역량과 성쇠 및 시공간의 환경을 보고 用神을 정해야 한다. 비유컨대 여름의 丙火는 너무 뜨거우므로 水氣가 상승하여 구름이 비를 내려야만 水火既濟의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어찌 癸水를 나쁘다고 한다.

겨울의 丙火는 火勢가 극히 미약하고 눈과 얼음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다시 壬癸子丑辰의 습토와 냉수가 중첩되었다면 水旺火弱

의 형세로써 비록 태양이 있어도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반대로 丙火가 중첩되고 甲乙이 있고 지지에 寅午戌, 亥卯未가 方局과 화합을 이루고 있다면 從旺格이 되지 않는 한 재앙이 백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 2) 丁火의 성질 및 그 희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丁火는 陰에 속한다. 무릇 火란 것은 만물을 제압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금, 은, 동, 철은 丁의 제련이 없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야간에 생하면 좋고 巳酉丑의 月令을 얻으면 묘하다. 正月의 寅은 천덕귀인에 해당되고 卯를 얻으면 가장 좋다. 壬癸水를 꺼리고 낮에 출생하면 주로 처자를 극한다. 남방 운에는 관직에서 물러나며 서북방의 운에서 귀하게 된다.(丁火일간에 壬癸가 중첩하고 申子辰丑이 지지에 많으면 金水의 기세에 따르는 중격이 되므로 하는 말임)」

「醉醒子」에 이르되, 「丁火는 촛불과 같아서 丙火를 보면 빛을 잃게 된다. 그러나 득시하면 능히 천근의 무쇠를 녹일 수 있고 실령(失令)하면 한 치의 쇠도 녹이지 못한다. 건조한 나뭇가지가 있으면 계속 타오르지만 젖은 나무를 갖다 대면 오히려 꺼지고 만다. 그 왕쇠를 분별하여 왕하면 용광로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쇠하면 한 자루의 촛불과 같이 연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문장을 설명하면 태양을 뜻하는 丙火와는 달리 정화는 인위적인 장작불, 촛불, 화로불과 같다. 그러므로 천하를 두루 비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득시득세하면(여름에 태어나고 간지에 木火가 많으면) 금속을 제련하여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시실세(겨울에 태어나고 金水가 많으면)하면 한 치의 쇠도 녹이지 못한다. 인간이 만든 불과 같으므로 장작, 쉼, 기름, 전력 등의 연료가 없으면 불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木이 있어야 계속 타오를 수 있고 수분이 너무 많으면 木이 있어도 헛일이다.(예컨대 팔자에 水가 많고 火가 약하면 木이 있어도 불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丁火도 득시득세하면 왕하게 된다. 왕할 경우는 커다란 용광로와 같아서 金을 녹이지만 쇠할 경우는 한 자루의 촛불처럼 역량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丁火 일간일 경우는 득시득세를 잘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적천수」에 이르되, [丁火는 유약하지만 속은 뜨겁게 불타고 있어서 乙을 안아주면서 효도하고 壬과 합하여 충성하니 왕해도 치열하지 않고 쇠해도 궁하지 않다. 어머니가 있으면 가을 좋고 겨울도 좋다.]

이 말뜻은 丁火가 陰에 속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고요한 중에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 때를 만나면 권위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나아가고 물러섬에 무리가 없고 밖으로는 유순하지만 안으로는 문명의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乙을 안으며 효도한다는 것은 乙은 丁의 계모인데 辛金이 乙木을 극하는 것을 丁火가 辛金을 극하여 계모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므로 효도를 한다고 한 것이다. 壬과 합하여 충성을 한다는 것은 壬은 丁의 정관이니 합하면 임금과 백성이 합한 것 같고 丁壬합하여 木이 되니 木은 壬의 칠살인 戊土를 극하여 정관을 지켜주므로 충성한다고 한 것이다. 丁火는 유순하므로 태과와 불급의 폐단이 적고 비록 득시득세했을 지라도 오히려 써먹으니 이는 과열하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또한 실시실세 했다고 해도 빛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소멸하는 법이 없다. 사주 천간에 甲, 乙이 투출했다면 비록 金旺의 계절에 태어나도 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주의 지지에 寅, 卯가 있으면 비록 水旺한 계절에 나도 물을 꺼리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丁火는 음에 속하고 인위적인 화력과 같고 그 성질은 丙火보다 유순하고 화평하며 왕한 때는 庚辛金을 녹여 그릇을 만들고 약할 때는 실내를 밝혀 인간을 이롭게 한다. 왕해도 치열하지 않고 쇠해도 궁하지 않으니 오직 한 가닥의 생기(甲, 乙, 寅, 卯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재앙이 침범치 못하는 속성이 있다.

#### 4. 戊己土의 성질 및 그 회기

##### 1) 戊土의 성질 및 회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戊土는 陽에 속하고 제방과 언덕과 성벽의 흙이므로 능히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메마른 흙이므로 만물을 번식시키지는 못한다. 무릇 성벽이 형충파해 당하지 않으면 인민을 편안히 돌볼 수 있을 것이다. 甲乙木의 관살이 있으면 火로써 화해시킴이 좋고 서북운을 꺼린다. 金水가 왕하면 火가 도와주면 좋고 火를 용신으로 할 때는 水가 있어 火를 꺼버리면 흉하다. 戊己가 중첩하면 명리에 불리하고 庚辛이 많으면 일을 함에 있어 진퇴가 무쌍하다.]

「醉醒子」에 이르되, 「戊土는 성벽, 제방의 흙과 같아서 강과 바다의 물을 막는데 필요하다. 사주에 합이 되면 웅장한 기세가 되고 밀이 허하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역량이 작을 때 金이 왕하면 설기가 심하니 평생 동안 동남방을 좋아하고, 신왕할 때는 동남방이 마땅치 않다.」

위의 글을 풀이하면 戊土는 양강한 물질로써 제방 성벽과 같아 水의 우환을 방비하는데 쓰고, 식물을 파종하여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제방은 기초가 튼튼해야(일간이 四季에 태어나는 것, 즉 四立이전의 18일 이내에 나거나 火가 돕는 경우) 강물과 바닷물의 침범을 막아낼 수 있고 기초가 허약하면 무너진다는 뜻이다. 만약 간지가 합하여 戊癸합이 되거나(戊癸合化火하여 火生土하므로 세력이 강해짐) 지지가 火局이 되든지 지지에 辰戌丑未의 土가 많으면 기초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지지가 水木이 왕하면 기초가 약하므로 허해지므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戊土가 실세실시하면 金이 많은 것이 두려우니 이는 설기가 태과한 연고이다. 사주에 水가 많으면 戊土를 쓰는데 이때 甲乙木이 있어 戊土를 파괴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일간 戊土가 약하면 동남방 木火의 왕지로 운이 행하면 건강하고 돈과 벼슬이 따른다. 그러나 지나치게 득시득세하여 왕성함이 지나칠 경우에는 특수한 변격을 제외하고 오히려 재앙이 생긴다. 戊土는 특히 지지의 충을 싫어하는 데이는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적천수」에 이르되, 「戊土는 견고하고 무거워 중앙에 거하고 바르니 정지하면 모이고 움직이면 열려서 만물의 命을 지배한다. 물이 있어 윤택하면 만물이 살고 불에 건조해지면 만물이 병든다. 만인 坤에 있으면 沖하는 것이 두렵고 고요한 것을 좋아한다.」

임철초는 말하기를, 「戊土는 산과 언덕의 흙이고 성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己土에 비하여 높고 두텁고 강하고 건조하다. 己土의 발원지로써 中氣를 얻으면 正大하다. 봄과 여름에는 氣가 열려서 만물이 생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氣가 모여서 만물을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만물의 命을 맡았다고 하겠다. 그 氣가 陽에 속하므로 윤택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하며 寅을 깔고 앉으면(戊寅日) 申을 무서워하고 申을 깔고 앉으면 寅을 두려워한다. 대체로 沖하면 뿌리가 동요하니 이는 正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것을 회구하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戊土를 반드시 성곽과 제방에 비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양강하고 중정하므로 고요한 것이 좋고 동요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가장 꺼리는 것은 일지가 沖을 만나는 것이다. 봄에 태어난 戊土는 木火가 서로 돕는 것이 좋고, 여름에 태어나면 金水가 있어 운습하게 해주면 좋고, 가을에 태어나면 丙火가 있어 金을 억제하고 戊土를 도와줌이 좋고, 겨울생은 木火가 서로 도와 온기를 보태주면 좋다. 신왕하되 태과하지 말 것이며 신약하면 生扶함이 필요하다. 왕이 극에 달했으면 마땅히 金으로 설기할 것이며 극히 신약할 경우에는 특별격국의 판단에 의해 용신을 정할 것이다.

2) 己土의 성질 및 희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己土는 陰에 속하며 밭과 정원의 흙에 비유할 수 있다. 형. 충. 파. 해가 되어도 무방한 이유는 경작을 하려고 밭을 일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봄, 여름, 辰, 巳의 월에 태어나면 좋으니 이는 官印의 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을 상하지 않고 인을 파괴하지 않으면 발복할 命이다. 이런 사람은 위인이 착하고 논밭이 많은데 동남 운이 되면 더욱 좋다. 己土가 亥卯未 木局을 대동하였으면 부귀할 것은 틀림없다. 이런 사람은 위인이 온후하고 너그로우며 성급하지 않다. 辰, 戌, 丑, 未를 만나고 상관과 겁재가 있으면 소송 사건과 상복을 입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취성자」에 이르되, [己土는 전원의 흙이요 기강이자 법도이며 깊은 땅으로 씨 만물이 생육하는 기초가 된다. 水金이 왕하면 신약해지니 이때는 양인(陽刃)으로 도우면 크게 좋다. 득시해야 비로소 쓸모가 있으며, 인성이 왕하고 합이 많으면 오히려 형충이 되어야 이로울 것이다.]

위의 문장을 설명한다면 己土는 陰에 속하고 전원의 토지와 같아서 인공적으로 경작하고 파종해야 그 효능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己土의 일간에 사주에 합이 많다면 반드시 형충이 되어야 쓸모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것이다. 봄, 여름 태생은 木火가 모두 있어서 관인상생되고 상관이 없어서 관을 상하지 않고 재가 없어서 인을 파괴하지 않으면 자연히 발복한다. 사주에 戊己辰戌丑未가 중첩하면 가색격(稼穡格)이 아닌 한 관리와 재물과 인연이 없고 오히려 소송 사건이 있다. 己土는 기초가 튼튼하면 쉽게 동요하지 아니한다. 만약 쇠절에 놓이면(金水가 왕하면) 신약하니 이때는 대운에서 양인을 만나면 귀하게 된다. 일간이 실령하고(쇠절에 처하고) 천간 지지에 庚辛申酉己丑이 많으면 설기가 지나치니 복을 받지 못한다.

일간이 득시하면 천간 지지에 金氣가 있어서 식상이 水氣를 토하니 金이 필요하다. 만약 인성이 왕하고 합이 많으면 충하는 것이 좋다.

「적천수」에 이르되, [己土는 낮은 곳에 위치한 습한 땅으로써 中正에 처하여 모아 저장하므로 木이 성해도 근심할 것이 없고 水가 창궐해도 두렵지 않다. 불이 적으면 빛이 흐려지고 金이 많으면 金이 빛난다. 만약 왕해야 한다면 마땅히 도와야 한다.]

임철초는 이르되, [己土는 낮고 부드럽고 습하여 戊土에서 뺏어나간 것이며 가운데 위치하여 능히 만물을 축장한다. 부드러운 흙은 木을 생할 수 있고 木에게 극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木이 성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 土는 깊어 물을 저장하고 받아들이니 물이 창궐하지 못하고 방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이 범람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 없는 火는 습토를 생할 수 없으므로 火의 세력이 적으면 오히려 火의 빛이 흐려지고, 습토는 金氣를 운택하게 하니 金이 많으면 오히려 광채가 나서 보기에 좋다. 이처럼 하는 일이 없어도 쓸모가 있는 속성이 있어서 만약 만물이 성장, 발전하고 싶다면 土는 굳고 무거우니 火를 얻어 따듯하게 하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己土는 전원의 습토로써 만물을 생장케 하고 그 성질이 중정하여 편고하지 않으므로 무한대로 모으고 저장할 수 있으니 그 효용이 끝이 없다. 火가 있어 따듯하게 덥고 기초를 튼튼히 해주면 만물이 생장, 발육하는 것을 돕게 되니 木이 왕성해도 두렵지 않고 물이 많거나 金이 많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己土가 허약하고 천간에 비견, 겁제가 없으면서 지지에 火土의 도움이 없으면 신약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 형상이 되므로 특별격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려운 일생을 보낼 것이다.

## 5. 庚辛金의 성질 및 그 희기

### 1) 庚金의 성질 및 희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庚金은 양에 속하고 금, 은, 동, 철 따위의 금속으로써 태양의 열을 받아 이루어지고 丁火의 제지를 받으면 그릇을 이룬다. 丙火를 보면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 동남의 木火運을 좋아하고, 火

의 제련을 받으면 밝게 빛난다. 甲乙寅卯와 巳午未에 놓이면 관성과 인성이 힘을 얻으니 그 운에 발달할 것이다. 오직 서북방에 거하면 金은 무거워 물 밑에 가라앉으니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醉醒子」에 이르되, [庚金은 둔탁하고 속성이 강하기만 하므로 火의 제련을 받아야 성공하지만 운에 火를 만나는 것은 두려워한다. 여름에 난 庚金은 동남으로 행하면 지나치게 단련하는 꼴이 되고, 가을에 생한 庚金은 서북방으로 운행하면 역시 빛이 나지만 물이 깊으면 오히려 나쁘고, 木이 왕하면 오히려 庚金이 이그러질 것이고, 戊己土와 간지에 土가 중첩되었다면 충파를 만나지 않은 즉 매장되고 말 것이다.]

위 문장의 뜻은 庚金이 陽에 속하고 그 속성이 굳세고 강맹하여 金은 동철 같은 금속과 같다. 丁火의 정관이 있으면 쇠를 녹여 그릇을 만드니 좋다. 庚金은 동남 木火 大運이 오면 가장 좋지만 신왕해야 된다. 일간이 약하면 火가 왕성할 대운에 오히려 재앙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火의 제지가 있으면 공을 이루지만 신약할 때는 火의 대운이 흉하다고 하는 것이다. 庚金이 甲乙寅卯, 巳午未, 戊己가 있으면 財, 官, 寅이 연속하여 연환상생하므로 자연히 부귀 발전한다. 庚金이 대운과 유년에서 金水를 만나면 무쇠가 바다 속에 가라앉은 형상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庚金이 가을에 생하고 일간이 왕상한데 사주에 金水만 있고 火土가 없어서 혼잡하지 않으면 일컬어 金白水清이라고 하여 복이 있는 사주다. 그런데 水가 지나치게 많으면 물은 깊고 金은 적으니 水는 金이 생한 자식인데 자식이 너무 많으면 힘을 빼고 부모는 고생이 많으니 이를 물이 깊으면 오히려 서로 상극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金은 작은데 나무가 무성하면 도끼는 작은데 아름답드리 고목이 뻑뻑하니 나무를 도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가 이지러지고 만다.

이를 일컬어 木이 왕하면 오히려 金이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또 사주에 戊己土가 중첩하면 母旺子衰하니 엄마의 세력이 너무 강해 자식을 망치는 꼴이 된다. 土는 金을 생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를 土重金埋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戊己가 필히 형, 충, 파, 극을 만나야 비로소 묻혔던 쇠가 겉으로 드러나 공을 세우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적천수」에 이르되, [庚金은 살기를 띠고 강맹한 기세가 가장 으뜸이다. 水를 얻으면 맑아지고 火를 얻으면 예리해지고 土가 윤택하면 살고 土가 메마르면 물러질 것이다. 능히 甲木을 쪼개고 乙木을 보면 약해진다.]

진소암이 말하기를, [庚金은 하늘의 太白星으로써 살기를 띠고 강맹하니 水가 있으면 기운을 설하여 맑아지고 火가 있으면 기가 순수해져서 예리해진다. 물기가 있는 흙은 金을 생할 수 있지만 불이 있는 흙은 金이 연해지게 만든다. 甲木이 비록 강하나 쪼갤 수 있으며(이를 劈甲이라고 한다) 乙木이 비록 약하나 乙庚합하면 오히려 庚金이 약해진다.]

임철초는 말하기를, [庚金은 가을철의 속살지기로써 壬水를 만나면 강맹한 살기가 설기되고 씻어 버리니 깨끗해질 것이다. 불을 얻으면 예리해진다는 것은 丁火를 말함이니 丁火는 용광로의 불길로써 무쇠덩이를 녹이고 제련하여 더욱 날카로운 용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봄, 여름에 생하면 기가 약해지지만 丑辰의 습토를 만나면 살아나고 未戌의 메마른 흙을 만나면 더욱 약해져 위험할 것이다. 甲木이 대항하려 하지만 庚金의 힘으로 능히 빼개버리고 乙을 만나 습하면 도리어 유정하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庚金은 일종의 강맹한 금속이다. 천지간의 살기를 상징하는데 火가 있으면 그릇을 만드는 이용가치가 있고 水가 있으면 날카로운 살기를 설기하여 맑아지므로 귀하게 된다. 봄, 여름의 목화가 왕성한 계절에는 庚金이 극을 받음이 지나치므로 강맹한 기운이 쓸모없이 좌절되고 만다. 습토를 만나면 능히 성장하고 메마른 흙을 만나면 오히려 약해진다. 甲木을 만나면 벌목하는 공을 이루고 乙木을 만나면 음과 양이 화합하니 유정하다. 이상으로 경금의 일반적인 성질을 살피고 그 회기를 설명했다. 사주와 운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용과 사주와 세운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길흉관계는 뒤에서 설명한다. 庚金에 대해서는 丙火보다 丁火가 위력적이다.

## 2) 辛金의 성질 및 회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辛金은 陰에 속하며 수은, 주사, 진주, 벽옥같은 보석을 뜻한다. 日月의 정화가 모여 응결된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은 水를 만나 金白水淸하게 되는 것이며 土와 金水의 운도 좋고 辰戌巳의 동남운도 좋다. 사주에 丁火 칠살이 없으면 묘하다. 丁火가 있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

한다. 왜냐하면 진주를 화로 안에 넣는 것과 같으니 효용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寅午戌의 火局을 이루어 칠살국이 되어 辛金을 녹이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신왕해야 감당할 수 있다. 사주에 亥卯未 木局이 되고 천간에 丙丁의 火가 있다면 운이 午未로 갈 때 발복할 것이다. 巳酉丑의 金局이 지지에 있으면 오후하고 조화가 있으며 동방의 목 대운에 발달하고 남방화의 대운은 좋지 않을 것이다.]

「醉醒子」에 이르되, [辛金은 주옥이니 영이 통하는 속성이 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陽和와 沙水가 있어 맑은 것이다. 金局을 지니고 있다면 火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습토가 있어 생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木이 많고 火가 왕하면 마땅히 서북방 운이 좋고 水가 냉하고 金이 차가움이 심하면 丙丁의 火를 필요로 한다. 지지에 酉가 있고 신왕하면 어찌 土가 많아 매몰될 것을 걱정하겠는가?]

위의 문장을 풀이한다면 辛金은 성질이 유화하고 수은, 진주 같은 보석에 비유할 수 있는데 金白水清이고 火土가 혼잡하지 않고 순수하면 불만하다. 土가 지나치게 많으면 서북 金水의 대운으로 가서 土의 기를 설기시키면 좋다. 대체로 火의 극을 받으면 나쁘고 丙火는 습하여 水로 되니 무방하지만 丁火는 칠살로써 辛金을 태우므로 나쁘다. 사주에 木火通明한데 신금이 신약해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해 애석할 때는 남방 운으로 가서 왕한 木火의 성질에 따라야 한다.

이는 특별격국에 속한 통변의 묘인데 옛 선현들은 극도로 신약하면 생부 함이 나쁘다고 했다. 사주의 지지가 金局을 이루고 천간에도 金이 많으면 운이 동방 木運으로 가면 큰돈을 번다. 이때 운에 火가 와서 왕한 金을 범하면 왕한 신이 노하여 화를 초래할 것이다. 팔자에 木火가 비교적 왕하고 辛金이 약하지 않다면 金水의 운이 좋으니 이는 金이 辛을 보조하여 木을 극하는 연고이며 水가 火를 제압하여 주기 때문이다. 辛金이 겨울에 출생하면 金寒水冷하니 반드시 丙丁의 火가 있어야 한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寒金向暖이라고 한다. 辛金이 일지에 酉가 있고 지지가 巳酉丑 金局을 이루었다면 신왕한 현상이니 土가 많아도 매몰될 염려가 없다.

「적천수」에 이르되, [辛金은 부드럽고 약하므로 따뜻하고 윤택하게 하면 맑고 깨끗해진다. 흙이 중첩된 것을 두려워하고 물이 가득한 것을 좋아하며 사

직을 수호하고 생명을 구원한다. 더우면 어머니를 좋아하고 추우면 丁火를 좋아한다.]

임철초는 말하기를, [辛金은 陰에 속하고 따뜻하면 연해지고 물이 맑으면 빛을 낸다. 戊己의 土가 많으면 매몰되는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壬癸의 水가 많으면 반드시 水氣를 설하므로 즐거워한다. 辛은 丙의 신하인데 丙과 합하면 군신이 유정하게 되고 丙火로 하여금 壬水의 신하가 되어 복종케 하니 사직을 편안케 하는 격이 된다. 辛은 甲의 임금인데 丙과 합하여 丙火가 甲木을 태우지 못하게 하니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셈이 된다. 여름에 태어난 辛金이 己土를 만나면 己土는 능히 거센 불길을 받아들이면서 辛金을 생하니 좋다. 겨울의 얼어붙은 땅에서 태어난 辛金이 丁火를 얻으면 능히 한기를 몰아내어 辛金을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辛金이 겨울에 생하고 丙火가 있으면 남자는 귀하게 되지 못하니 비록 귀하게 될지라도 불충할 것이며 여자는 남편을 극할 것이니 만약 남편이 죽지 않으면 불화할 것이다. 겨울의 辛金이 丁火를 얻으면 남녀 공히 귀하고 유순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辛金은 유약해서 강맹한 庚金과 다르다. 윤택한 것을 좋아하고 메마른 것을 싫어하므로 겨울 생이 아닌 한 丁火가 있으면 나쁘다. 土가 너무 많으면 매몰될 우려가 있고 火가 너무 많으면 土가 있어 살인상 생하는 것이 좋고, 木이 너무 많으면 비견, 겁재를 쓴다. 化氣格, 從旺格, 從革格 등의 변격은 각각의 특수한 용법이 있으므로 이상의 일반론과 다르게 판단할 일인데 변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한다.

## 6. 壬癸水의 성질과 그 희기

### 1) 壬水의 성질과 희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壬水는 陽에 속하고 호수와 강물 같은 물이다. 능히 초목을 생하고 만물을 부양한다. 봄, 여름에 태어나면 좋고,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면 생해주는 의사가 없다. 만약 寅午戌이 있어서 관성을 생조해주면 명예를 스스로 떨칠 것이다. 지지에 金局을 이루고 酉月에 생했다면 명리를 얻는다. 지지에 水局을 이루고 3월에 났다면 천덕귀인이 있으므로 귀히 되고, 지지에 亥卯未 木局이 있고 운이 남방 火로 행하면 돈을 벌 것이다.]

「醉醒子」에 이르되, [壬水는 왕양한 하천으로 땅위의 어디든지 흘러간다.



간지에 水가 태과하면 방탕하고 火土가 있어 제어하면 방탕하게 흐르지 않는다. 신강하고 재관이 없으면 서북 운에 재액을 만날 것이다.]

위의 글을 설명하면 壬水는 陽에 속하고 그 성질이 왕양한 강물 같아서 길게 흘러가고 천지간의 만물은 물에 의지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봄, 여름에 생하면 木火가 빛을 발하고 水火既濟의 형상을 이루므로 복을 받는다. 추동에 생하면 金寒水冷하므로 생기가 없다. 만약 사주와 운에 火土의 재관이 있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酉月에 났다면 金水가 왕상하므로 재, 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名利兩全이라고 한다. 3월에 생하고 지지에 申子辰 水局을 이루든지 아니면 3월생이 지지에 亥 또는 卯未가 있을 때는 동남방 운으로 가면 좋다. 선현들이 이르되, 왕한 자는 마땅히 설기해야 하고 극을 받으면 좋지 않다고 했으니 동남 운에 돈을 벌 것이다.

사주에 壬癸申子辰亥 등의 水가 중첩되었을 경우에는 윤하격(潤下格)이라는 변격이 되지 않는 한 방탕하고 재앙이 많을 것이다. 사주에 火土가 유력하면 방만히 흐르는 壬水의 속성을 제어하며 제방을 쌓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운과 대운에서 화토를 만나면 발복한다. 壬水는 午에서 胎가 되고 未에서 養이 되고 申에서 長生하고 亥에서 건록하니 이런 지지가 사주에 많고 비견, 겁재, 건록, 겁재가 중첩하여 있는데 관살(土)이나 재(火)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만약 윤하격을 이루지 못하는 한, 서북의 金水 대운에 나쁘다. 이런 사람은 그런 운에 반드시 극치하고 파재하며 가업을 탕진할 것이다.

「적천수」에 이르되, 「壬水는 天河를 통하여 金氣를 설하고 강한 가운데 덕이 있어 두루 흘러 막히지 않는다. 지지에 통근(通根)하고 癸水가 투출하면 맹렬히 흘러갈 것이고 化하면 유정하고 從한 즉 相濟의 功을 이룰 것이다.」

임철초는 말하기를, 「壬水는 癸水의 발원지로 곤륜의 물이다. 癸水는 壬水의 귀속지이다. 즉 壬水는 수원지의 높은 곤륜산에서 발원하여 흐르고 癸水는 바닷물이다. 壬水는 땅위를 흐르면서 나뉘고 합하여 수많은 물줄기를 이루며 비와 이슬이 된다. 申은 하늘의 관문(天關)이며 천하(天河)의 입구이므로 壬水의 장생지가 된다. 壬水는 金氣를 설하고 두루 흘러 막히지 않으며 강한 속에 덕이 있는 것이다. 만약 사주에 申子辰이 모두 있고 癸水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그 기세가 거세어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에 관살과 재(火와 土)가 없으면 필히 재앙이 있는 운명이다. 丁과 합하여 木이 되어 木生火하니 유정하고 능히 丙火를 극제하여 丙火로 하여금 丁火의 광

채를 배지 못하게 하니 丁火의 입장에서 壬水를 보면 의로운 남편이고 어진 임금이다. 여름에 생하였으면 巳午未月 가운데 있는 火土의 기운이 강하여 그 뜨거운 온기로 강물 壬水를 증발시켜 비와 이슬이 되게 하므로 비록 火土에 종관살, 중재한다고 해도 相濟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총괄해서 설명하면 壬水는 天河에서 발생하여 드넓은 땅위로 흘러 탕탕히 흐르는 기세가 있다. 만물은 水의 덕으로 살아간다. 壬水가 고갈되고 火土가 중첩하여 강하면 왕한 火土에 따르는 종격이 되지 못하고 火水가 서로 돕는 공도 없고 만물이 말라 죽게 된다. 그러나 壬水 일간에 지지에 申子辰이 모두 있어 水局을 이루고 癸水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이를 冲天奔地라고 하여 만약 火土의 제어함이 없으면 화가 된다. 만약 사주에 재관이 있고 재관이 천간과 지지에 모두 있으면 행운이 재관으로 갈 때 발복할 것이다. 사주에 재관이 없고 윤하격을 이루었는데 운에서 戊己의 관살을 만나 극을 받으면 왕한 水가 노하여 물로 인한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때는 木으로 왕한 水의 기운을 뽑아내는 것이 좋고 그 木이 토를 막아 주니 발복하고 득재한다. 化格과 從格 등의 變格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한다.

## 2) 癸水의 성질과 희기 -

「삼명통회」에 이르되, [癸水는 큰 바다의 물이니 끝이 없다. 그리고 壬水와 다르게 만물을 생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癸水는 비와 이슬의 물이 될 때는 만물을 도와 생장을 촉진한다. 봄과 가을에 생하고 운에서 巳午未를 만나면 좋으니 크게 발달할 것이다. 크게 꺼리는 것은 辰戌丑未이니 운에서 이와 같은 敗地를 만나면 흉하다.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일간이 강하다면 식상이 재를 생하여 돈을 번다. 이때 甲과 寅이 없어야 하는데 그리 되면 名利가 따를 것이다. 사주에 己土가 있고 丑未月에 생했고 거기다가 三刑을 대동했다면 먹고 살 걱정은 없고 초년은 곤고할지라도 말년에는 영화가 따를 것이다. 만약 五行의 구함이 있다면 신왕하게 되는 운이 되면 재관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귀하게 된다.]

「醉醒子」에 이르되, [癸水는 비와 이슬의 물이지만 지지에 亥子가 있는 즉 강과 하천의 물이 된다. 사주에 申과 子가 모두 있으면 上格이고 寅午戌을 구비하면 中和가 필요하다. 火土의 계절에 났다면 서북의 금수운으로 가야 한다.]

위의 글을 설명한다면 癸水는 오로지 비와 이슬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며 빗물이 모이면 강물도 된다. 壬癸는 하나는 陽이고 하나는 陰으로써 밀접한 연관을 맺고 서로 위치가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 물은 불을 만나면 수증기가 되어 구름과 안개로 변하고 대기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냉각하여 빗물로 뭉쳐 땅으로 떨어져 강물과 호수와 바다가 된다. 이처럼 순환하여 끝이 없는 것을 일컬어 陰陽交替라고 한다. 癸水는 陰에 속하므로 그 속성이 유약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지지가 申子辰 水局이 되거나 또는 亥子丑 北方을 이루고 천간에 壬癸가 투출하게 되면 왕양한 큰 바다의 물이 된다. 만약 사주에 申子辰亥丑의 水氣가 없다면 癸水 일간이 허약하고 뿌리가 없으므로 사주에 재관이 많으면 극을 받고 재앙이 생긴다.

만약 지지에 申子辰 水局을 이루고 다시 천간에 壬癸의 水가 있어서 천간과 지지가 온통 물바다라면 윤하격이 되어 대부대귀한다. 癸水 일간이 지지에 寅午戌 火局을 이루고 있다면 水火가 서로 돕는 형상이 못된다. 이때는 필히 사주에 金水가 있어 中和를 이루어야만 된다. 일간 癸水가 여름에 생하고 사주 전체가 火土일색이면 운에서 서북의 金수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점의 물방울이 뜨거운 기운에 의해 증발하고 말 것이다.

「적천수」에 이르되, [癸水는 지극히 약하지만 天津에 도달하여 용을 얻으면 변화를 부릴 것이니 공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면 火土를 두려워하지 않고 庚辛金을 가리지 않는다. 戊와 합하여 化象이 된다.]

임철초는 말하기를, [癸水는 비와 이슬을 일컬음이 아니고 순수한 陰水를 말한다. 發源이 비록 길다고 하지만 그 성질이 지극히 약하고 세력이 가장 고요하여 능히 흙을 적셔 흙으로 하여금 金을 생조하게 하고 만물을 발육시킨다. 구름이 용(辰)을 만나는 운에는 조화를 부리니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지경이다.] 여기서 용은 辰을 일컬음이니 辰土가 없으면 조화를 부리지 못한다. 火土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火土가 많은 즉 從化의 격이 되는데 이는 가장 연약한 癸水의 특징이다. 庚辛金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한 물은 金氣를 설기하지 못하므로 金이 많으면 계수가 탁해지기 때문이다. 戊가 있어 火로 化함은 陰이 극하면 陽이 생하는 그러므로 戊土가 건조하고 두터우나 사주에 丙火가 투출하면 火神을 끌어당기니 진정한 化가 된다. 만약 추동의 金水가 왕성한 때에 태어났다면 비록 지지에 辰이 있고 丙丁戊가 천간에 투출했다고 해도 從化가 되지는 못한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癸水는 陰에 속하고 그 성질이 연약하다. 癸水는 비와 이슬에서 생기지만 모여서 세상을 적시고 강물과 호수와 바다가 된다. 만약 팔자가 純하고 和하며 五行이 구비되어 있다면 마땅히 正五行의 이론으로 희기를 분간할 것이니 癸水 일간이 약할 때는 生扶하고 일간이 왕하면 剋할 것이다. 癸水는 유약함이 가장 심하므로 從하는 오행이 왕성할 때는 왕성한 자의 힘을 빌려 거기에 의지하고 따르면 아주 좋다. 癸水 일간이고 천간에 戊土가 있어 합이 되면서 여름에 생하고 지지에 寅午戌 火局을 이루거나 巳午未 三會方을 이루고 천간에 丙丁이 투출하면서 壬癸申子亥의 충극이 없으면 戊癸合化 火格이 성립되니 운에서 水運을 만나지 않는다면 대부대귀할 것이 틀림없다. 癸水는 유약하므로 金이 있어야 한다.

## 7. 십천간의 성질에 관한 자료

임철초가 말하기를, 甲丙戊庚壬의 五干은 陽이고, 乙丁己辛癸의 五干은 陰이다. 각각의 오행은 음양은 달라도 하나의 안과 겉이다. 양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다. 甲乙은 같은 木이고 丙丁은 같은 火며 戊己는 모두 土고 庚辛은 모두 金이며 壬癸는 모두 水다. 분별하여 用을 취할 때에 陽은 강하고 陰은 약하며 양은 健하고 음은 順할 뿐이다 사주학을 하는 자들이 歌와 賦를 지을 때 甲은 동량이고 乙은 등나무, 丙은 태양, 丁은 등불, 戊는 성벽, 己는 전원의 흙, 庚은 굳은 쇠, 辛은 주옥, 壬은 강과 호수, 癸는 비와 이슬과 안개로 구분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그러나 명을 논할 때 甲은 뿌리 없는 死木, 乙은 뿌리 있는 活木 등으로 나누는데 하나의 나무를 놓고 어찌 죽은 것과 산 것으로 나누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해서 陽木은 死氣를 품고 있고 陰木은 生氣를 품고 있는가? 甲日에 난 사람은 생기가 없단 말인가?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본다. 活木은 水가 범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死木은 水가 범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 생나무는 물을 만나면 떠내려가고 죽은 나무는 물이 범람해도 뽑히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陰陽을 논하고 用을 취할 때는 먼저 五行의 生剋을 보고 五行의 制化를 찾아야 한다. 이는 음이건 양이건 마찬가지다. 어찌 양간은 극을 받지 않고 음간만 극을 두려워한다고 하겠는가? 음간은 쉽게 從하고 양간을 그렇지 않으니 이것만이 다를 뿐이다.]

## 8. 看命要訣

사주학은 일명 子平學이라고도 하는데 논명할 때에 五行과 四時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사주학은 일주 천간 命主가 어느 月, 어느 節氣에 태어났는가를 정하고 십이운성 및 五行旺相死囚休 등의 관계를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월과 절기가 같더라도 일간의 오행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간의 旺衰強弱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주의 천간과 지지, 일간의 生剋制化와 會合刑沖, 천간에 투출함과 지지에 감추어짐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외에도 일간의 喜忌를 살펴서 항상 정상적 격국과 변화된 격국인 특별격국을 구분하여 다른 법칙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따라서 논명의 과정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아래에 설명하려는 것은 「연해자평」에 기록된 오행의 상생상극하는 핵심 원리인데, 격국을 정하고 용신을 취하고 희기를 밝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리이다.

### ● 官 -

金이 旺하면 火를 얻어야 비로소 그릇을 이룬다.  
火가 旺하면 水를 얻어야 비로소 서로 돕는 공을 이룬다.  
水가 旺하면 土를 얻어야 비로소 연못을 이룬다.  
土가 旺하면 木을 얻어야 비로소 소통의 공을 이룬다.  
木이 旺하면 金을 얻어야 비로소 대들보를 이룬다.  
(여기서 官은 정관과 칠살의 이로움을 말한 것이다)

### ● 印 -

金은 土에게 생조함을 얻지만 土가 많으면 金이 파묻힌다.  
土는 火에게 생조함을 얻지만 火가 많으면 土가 메마른다.  
火는 木에게 생조함을 얻지만 木이 많으면 火가 질식한다.  
木은 水에게 생조함을 얻지만 水가 많으면 木은 표류한다.  
水는 金에게 생조함을 얻지만 金이 많으면 水는 탁해진다.  
(여기서 印은 정인과 편인의 해로움을 말한 것이다)

◎ 傷 -

金은 水를 능히 생하나 水가 많으면 金이 가라앉는다.  
水는 木을 능히 생하나 木이 많으면 水가 졸아든다.  
木은 火를 능히 생하나 火가 많으면 木이 타버린다.  
火는 土를 능히 생하나 土가 많으면 火가 빛을 잃는다.  
土는 金을 능히 생하나 金이 많으면 土가 변질된다.  
(여기서 傷은 식신과 상관의 해로움을 말한 것이다)

◎ 財 -

金은 木을 능히 극하나 木이 많으면 金은 일그러진다.  
木은 土를 능히 극하나 土가 많으면 木은 부러진다.  
土는 水를 능히 극하나 水가 많으면 土는 떠내려간다.  
水는 火를 능히 극하나 火가 많으면 水는 고갈된다.  
火는 金을 능히 극하나 金이 많으면 火는 꺼진다.  
(여기서 財는 정재와 편재의 해로움을 말한 것이다)

◎ 殺 -

金이 약한데 火를 보면 金은 녹아 없어진다.  
火가 약한데 水를 보면 火는 꺼져버린다.  
水가 약한데 土를 보면 水는 막힌다.  
土가 약한데 木을 보면 土는 무너진다.  
木이 약한데 金을 보면 木은 부러진다.  
(여기서 殺은 정관 또는 칠살의 해로움을 말한 것이다)

◎ 食 -

强金이 水를 얻으면 그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진다.  
强水가 木을 얻으면 그 기세가 유통된다.  
强木이 火를 얻으면 그 완고함이 없어진다.  
强火가 土를 얻으면 그 뜨거움이 식는다.  
强土가 金을 얻으면 그 막힘이 해소된다.  
(여기서 食은 식신과 상관의 이로움을 말한 것이다)

아래에 사주학의 대가들이 오행의 희기의 요체를 설명한 것을 서술한다.

① 무릇 일간이 木에 속할 때 논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木勢의 盛衰를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木이 重하고 水가 多하면 이것은 盛이다. 이때는 金을 用하여 木을 극한다. 金이 없거나 미약하여 木을 극할 역량이 없을 경우에는 土를 用한다. 반면에 木이 미약하고 金이 강성하면 일주가 衰하므로 火를 써서 金을 제압한다. 火가 없거나 힘이 약하여 金을 제압할 수 없을 때는 木을 用한다. 水가 많아 木이 표류할 경우에는 土를 써서 水를 제한한다. 火는 그 다음으로 쓴다. 또 土가 많아 木이 부러질 경우에는 木을 用하고 水는 그 다음으로 쓴다. 또 火多하여 나무가 탈 때는 水를 用하고 金은 그 다음으로 쓴다. 그리고 일간 木이 득시, 득세하여 왕함이 극에 이르렀을 때는 火를 써서 왕한 기운을 설기시킨다.

② 무릇 일간이 火에 속할 경우에는 우선 火力의 旺衰를 분별한다. 火가 많고 木도 많으면 旺이므로 水를 用하여 火를 극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水가 적어 힘이 없을 경우에는 金을 用한다. 火弱하고 水旺할 경우에는 火가 衰한 상태이므로 土를 用하여 水를 제하고 土가 적으면 火 역시 可하다. 木多하여 火가 꺼질 상황이면 水를 用하여 火를 제하고 金으로 木을 극하는 것은 그 다음의 방법이 된다. 金多하여 火가 꺼지는 상황이면 우선 火를 用하고 木은 그 다음으로 쓴다. 土多하여 火가 빛을 흡수당하면 木을 用하고 水는 그 다음으로 用한다. 일간 火가 득시 득세하여 극도로 왕하면 土로써 火의 왕성한 기세를 설기시킨다.

③ 일간 즉 命主가 土일 경우에는 반드시 土의 두텁고 얇은 상황을 살펴서 용신을 정해야 한다. 土重火多하면 厚한 土이므로 木을 用하여 소통하고 木이 약하면 水로 木을 돕는다. 土少木多하면 얇은 흙이니 金을 用하여 木을 제어하는데 金이 약하면 土 역시 可하다. 火多하여 土가 焦하면(메마르고 뜨거우면) 水를 用하여 火를 제하고 金은 그 다음으로 用한다. 일간이 득시, 득세하여 극왕하면 金으로 왕한 土氣를 설기시킨다.

④ 命主가 金이면 먼저 金質의 老와 嫩의 상태를 분별한다. 金多土厚면 老金이니 火로 煉金하고, 火少할 때는 木 역시 可하다. 木重金輕하면 嫩金이므로 土를 用하여 金을 生하는 것이 원칙이며 土가 薄하면 金 역시 可하다. 土多하여 金이 매몰되면 木을 用하고 水는 그 다음으로 用한다. 水多하여 金이

가라앉으면 土를 우선 用하고 火는 그 다음으로 用한다. 火烈하여 金이 傷하면 水를 用하고 金은 그 다음으로 用하다. 일간 金이 극왕하면 水를 用하여 극왕한 金기를 설기시킨다.

⑤ 命主가 水일 때도 먼저 水勢의 大小를 구별한다. 水多金重하면 大하니 土를 用하여 水를 막고 土少하다면 火를 보아도 可하다. 水少土多하면 小한 상태이니 木을 用하여 土를 극하고 木少하다면 水가 있으면 用한다. 金多水濁하면 火를 취하고 木은 그 다음으로 취한다. 火炎水熱하면 水를 우선 用하고 그 다음으로 金을 用한다. 木多하여 水가 줄어들면 金을 우선 취하고 土는 그 다음으로 취한다. 水가 극왕하면 木으로 설기한다.

(출처 : 紫雲연구소 재활용)